

# 모든 과거를 내려놓을 때 오는 순수한 바라봄

| 오소 | 손민규 옮김 |

기억, 즉 과거 경험을 통해 보는 모든 것은 환영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을 내려놓고 볼 때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된다는 것도... (편집자 주).



**마**음은 기억이다. 마음은 컴퓨터와 같다. 정확히 말해 마음은 생체 컴퓨터이다. 배우고 경험한 바 모두를 컴퓨터에 저장한다. 마음은 수많은 생애 걸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험에서 오는 기억들을 모은다. 마음은 엄청난 기억의 창고이다. 무수한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이다.

인간의 전생(前世)은 모두 마음에 저장된다. 과학자들은 단 한 순간에도 수많은 기억이 탄생한다고 말한다.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작용을 하는 것이다. 잠을 잘 때에도 기억은 형성된다. 옆에서 누가 울거나 훌쩍여도 감각이 작용하여 기억을 모은다. 무의식중에 했던 아침 일이 기억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깊은 최면상태로 들어가면 기억해낼 수 있다. 깊은 최면상태로 들어가면 알고 했던 일, 모르고 했던 일 모두를 기억할 수 있다. 전생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 마음의 넓이는 그야말로 광대하다. 사람이 기억을 이용하면 기억은 유용하다. 하지만 기억이 사람을 부르면 기억은 위험하다.

순수한 마음이란 기억의 주인이 된 마음이다. 불순한 마음이란 기억에 의해 계속 이끌려가는 마음이다. 대상을 볼 때 해석하지 않고 보면 나의 의식은 실재와 직접 접촉한다. 대상을 볼 때 마음으로, 해석으로 보면 의식은 실재와 직접 접촉하지 못한다. 마음은 하나의 도구로서는 훌륭하지만, 마음이 집착이 되고 의식이 마음에 의해 억압되면 실재 또한 마음에 의해 억압된다. 그런 삶은 마야(maya), 즉 환영이 된다.

하나의 사실을 볼 때 마음과 기억 없이 직접 보면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된다. 마음이나 기억으로 보면 이는 해석이 된다. 해석은 모두 거짓이다. 해석은 과거 경험에서 오기 때문이다. 마음과 해석으로 보면 과거 경험과 일치하는 것만을 보게 된다. 과거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한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이 전부는 아니다. 삶은 과거의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큰 것이다. 전 존재계를 생각하면 아무리 큰마음이라 할지라도 티끌에 불과하다. 알려진 기지(既知)의 세계는 아주 적다. 알려지지 않는 미지(未知)의 세계는 광대하고 무한하다. 기지의 세계를 통해 미지의 세계를 알려고 하면 핵심을 놓친다. 이것이 곧 불순함이다. 미지의 마음을 통해 미지의 세계를 알려고 할 때 계시가 내려온다.

신이 자신의 과거 경험과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은 신을 믿지 않는다. 항상 시장바닥에서만 살아서 시장이나 사업이나 계산만을 아는 사람은 명상을 믿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담백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찬미도 알 수 없다. 과학의 세계에서 산 사람은 인과의 법칙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sup>1)</sup>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아무것도 자발적일 수 없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말을 과학자는 ‘그런 건 없어요. 거짓말이오’라고 말할 것이다.

내면의 세계에서 수행을 한 사람은 원인 없는 현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뿐만 아니라 존재계 전체가 원인 없이 태어났다는 사실도 안다. 이는 과학적인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이다.

사람이 사물을 볼 때마다 해석이 끼어든다. 나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그럴 듯하게 들리면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라는 긍정의 모습을 한다. 속으로 ‘맞다’고 말한다. 내가 하는 말이 그럴 듯하게 들리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표정도 짓지 않는다. 다

---

1) 자발적인(spontaneous): ‘특별한 이유나 목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만 속으로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이예요.’라고 말한다.

힌두교인은 세계가 마야, 즉 환영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지금 여기 존재하는 세계가 환영이라는 말은 아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만들어진 세계, 해석으로 지은 세계가 환영이라는 말이다. 사실성의 세계는 환영이 아니다. 이는 브라흐만<sup>2)</sup> 자체이다. 지고한 실재이다. 하지만 인간이 마음과 기억으로 만들어 낸 세계는,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자신을 오라처럼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인간은 그 세계와 더불어 생활하고 그 세계 안에서 산다. 어디를 가든 그 세계를 지니고 다닌다. 그것이 자신의 오라요, 그 오라를 통해 세상을 본다. 그렇게 보는 세상은 실재의 세계가 아니라 해석의 세계이다.

해석이 곧 방해물이다. 해석하면 실재는 사라진다. 해석 없이 볼 때 실재는 드러난다. 항상 거기 있었던 것이다. 실재는 매 순간 거기에 있다. 어떻게 거기에 없을 수 있겠는가? 실재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실재는 단 한 순간도 다른 곳으로 이동해본 적이 없다.

단지 인간이 해석의 세계에서 살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실재는 누구에게나 공통된 것이지만 환영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다.

왜 인간은 마음으로 실재를 해석하는가? 실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실재에 대한 불안감이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실재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마음과 다를 수 있다. 실재는 그냥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실재는 내가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실재가 자신의 꿈하고 다르면 실재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 자신이 바라는 꿈만을 보려고 한다. 인간은 이렇게 자신을 속이며 수많은

---

2) 브라흐만(Brahma): 힌두교의 창조 신.

은 생을 허비한다. 다른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해석하고 투사한다고 실재는 달라지지 않는다. 쓸데없이 고통에 휩싸일 뿐이다. 거기에 문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은 없다. 벽이 있다. 그 벽을 뚫고 지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삶은 고통의 연속이요, 번뇌의 연속이 된다.

실재를 보지 않으면 그대가 살고 있는 감옥의 출구를 발견할 수 없다. 출구는 분명 존재하지만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있는 게 아니다. 출구는 존재한다. 모든 욕망을 내려놓으면 출구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문제이다. 계속해서 자신의 바람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믿고 투사하지만 매번 믿음은 산산조각 나고 투사했던 것은 새벽 이슬처럼 사라진다. 그런 삶이 수없이 반복된다. 꿈은 실재에 의해서 충족될 수 없다. 꿈이 깨지고 무지개가 사라질 때마다 하나의 욕망은 죽고 고통스런 삶은 이어진다. 그러면 곧바로 다른 꿈을 만들어내고 다른 희망의 무지개를 띄운다. 또 다시 자신과 실재 사이에 무지개 다리를 띄우는 것이다.

아무도 무지개 다리 위를 걸을 수 없다. 그것은 다리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리가 아니다. 무지개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무지개가 있는 곳에 가보라. 거기에 무지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지개는 백일몽 같은 현상이다. 의식이 성숙하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더 이상의 투사나 해석은 없다. 이제 나는 있는 그대로 대상을 볼 준비가 되어 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 논리는 그 한계를 드러낸다. 논리는 무한하지 않다. 논리는 무한할 수 없다. 사실 논리는

신비가 '꽃에 대해' 생각하지도, '꽃을'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는 그냥 꽃과 함께할 뿐이다. 나를 지켜보는 것이 꽃일 수도 있고,  
꽃을 지켜보는 것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변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때는 나도 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 다 사라집니다.

무한성을 거부한다. 논리는 항상 한계와 경계 안에서 존재할 뿐이다. 마음의 한계 안에서만 논리는 그 생명을 유지할 뿐, 무한계에서 논리 너머의 세계가 내려온다. 신비의 세계가 들어오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그래서 논리는 무한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논리는 모든 것이 유한하며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모든 것은 경계 안에서만 존재하며 그럴 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리는 항상 무한세계를 두려워한다. 논리의 눈에 무한계는 망막한 어둠이다. 논리는 망막한 무한계로 들어가길 두려워한다. 논리는 잘 닦인 도로 위를 달릴 뿐, 야생의 광야를 달리지 않는다. 잘 닦인 도로에서는 모든 게 안전하고 달리는 방향이 분명하다. 하지만 도로를 벗어나 광야로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논리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다. 논리는 깊고 깊은 두려움이다.

나에게 논리가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논리란 가장 소심한 겁쟁이'라고 말하겠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항상 논리 너머의 세계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겁이 많은 사람은 항상 논리의 한계 속에 안주한다. 논리는 아주 아름답게 치장된 감옥이다. 광대무변한 하늘과는 거리가 멀다. 하늘에는 어떠한 치장도 인테리어도 필요하지 않는다. 하늘에는 치장이 없지만 광대무변하다. 하늘은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에는 그만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래서 자유는 치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늘은 하늘로서 족할 뿐이다. 화가도 필요없고 인테리어도 필요없다. 광대무변함이 곧 하늘의 아름다움이다. 그 광대함은 엄청나다. 마

음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떴다.

마음은 그 앞에서 왜소해도 너무 왜소하다. 그 앞에서 에고는 산산 조각이 난다. 그래서 에고는 논리와 정의(定擬)라는 아름다운 감옥을 만든다. 모든 것을 논리에 따라 반듯하게 세우고 정리하여 미지의 세계로 가는 문을 닫는다. 그리고 자신만의 세계, 분리된 세계, 개인의 세계를 만든다. 그런 세계는 전체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세계는 잘린 세계이다. 전체계<sup>3)</sup>로부터 잘린 세계이다.

그래서 논리를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신성(神性)의 세계로 갈 수 없다. 논리는 인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논리를 통하면 신성으로 가는 다리가 무 진다. 신성은 야성이다. 신비요, 경이(驚異)다.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신비이다. 이는 인간이 풀 수 있는 수수께끼가 아니다. 인간의 사랑을 넘어선 불가사의이다. 신성의 본성이 그러해서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언젠가는 논리의 벽에 부딪친다. 계속해서 생각에 생각을 몰아가면 논리적인 생각은 비차르(vichar), 곧 사색으로 변한다.

시작은 논리적인 생각이요, 이를 계속하면 끝은 사색이 된다. 철학자가 어느 한 곳에 걸리지 않고 사유를 계속하면 어느 날 시인이 된다. 철학적인 사유의 한계를 넘어서면 철학은 시로 변한다. 시는 비차르, 곧 사색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라. 논리적인 철학자가 정원에 앉아 장미를 본다. 장미를 해석하고 분류한다. 그는 장미의 유형과 기원, 장미의 생리와 성분 등에 대해 알고 있다. 장미에 대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장미의 종류를 분류하고 정의하고 연구하지만 장미 자체를

---

3) 전체계(the whole): 존재계 전체로 존재하는 세계

경험하지 않는다. 장미의 여기저기, 이것저것을 생각하고 사유하고 연구하지만 장미 자체를 체험하지 않는다.

논리는 장미 자체에 대한 체험이 될 수 없다. 논리는 장미를 자르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결과에 이름을 붙일 수는 있지만 장미 자체를 체험할 수는 없다. 장미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논리의 한계이다. 설령 논리가 원한다 해도 장미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 가슴만이 장미를 체험할 수 있지만 논리에는 가슴이 없다. 논리는 머리가 하는 일이다. 머리는 결코 장미를 체험할 수 없다. 장미는 결코 그 신비를 머리에겐 드러내지 않는다. 머리의 일은 겁탈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장미는 사랑에 그 문을 열지 겁탈에 그 문을 열지 않는다.

과학은 겁탈이고 시는 사랑이다. 과학의 길도 아이슈타인과 같이 계속 추구하면 시가 된다. 아인슈타인은 말년에 시인이 되었다. 에딩턴<sup>4)</sup>도 말년에 시인이 되었다. 그들은 말년에 신비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논리의 한계점에 도달했던 것이다. 항상 논리의 영역에 머무는 사람은 그 정도로 논리의 한계까지 밀고 가지 못한다. 이는 참다운 논리가 아니다. 참다운 논리의 길을 끝까지 가면 논리가 끝나고 시가 시작하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시인은 무엇을 하는가? 시인은 사색을 한다. 꽃을 보고 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상당히 미묘한 차이이다. 논리가는 ‘꽃에 대해’ 생각하고 시인은 ‘꽃을’ 생각한다. ‘꽃에 대한’ 것은 꽃 자체가 아니다. 꽃에 대해 아무리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은 꽃이 아니다. 논리가는 주위에서 빙빙 돌지만 시인은 직접 꽃으로 가 꽃을 만진다. 시인에게 장


---

4) 에딩턴(Eddington, Arthur Stanley, 1882.12.28~1944.11.22): 영국의 천문학자이자 이론물리학자. 주요 저서로는 ‘시간·공간·중력’ 등이 있다.



미는 ‘장미이고 장미이며 장미이다.’ ‘장미에 관한’ 무엇이 아니다. 시인은 내면으로 들어간다. 장미에게로 직접 간다. 기억을 불러내지도 않는다. 이는 같은 대상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는 일이다. 같은 대상을 바라보지만 보는 질이 다른 것이다.

시인은 ‘꽃 자체’를 생각하지 ‘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직도 분리가 존재한다. 시인은 꽃과 분리되어 있다. 시인은 주체이고 꽃은 객체이다. 아직도 이중성이 존재한다. 시인은 이중성을 초월하여 꽃이 되지 못했다. 아직도 관찰자는 관찰자로, 피관찰자는 피관찰자로 존재한다. 관찰자는 피관찰자가 되지 못한 것이다. 거기에 이중성이 존재한다.

여기 꽃을 든 신비가가 있다. 신비가는 ‘꽃에 대해’ 생각하지도 ‘꽃을’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는 그냥 꽃과 함께할 뿐이다. 꽃을 거기 놓고 보고 자신도 거기 놓고 본다. 거기에 놓고 보는 순간 돌연 합일이 일어난다. 꽃도 더 이상 꽃이 아니요, 관찰자도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다. 별안간 에너지가 서로 만나 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중성이 사라진다. 신비가는 꽃이 무엇인지, 꽃을 지켜보는 이가 누구인지 모른다. 신비가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나를 지켜보는 것이 꽃일 수도 있고, 꽃을 지켜보는 것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변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때는 나도 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가 된 에너지만 남습니다. 내가 꽃이 되고 꽃이 내가 됩니다.’ 이런 경지가 니르비차(nirvichara), 즉 사색이 사라지고 존재만 남은 경지이다. (끝) 

• 이 글은 ‘비움 요가수트라1’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저자 | 오쇼 | 오쇼는 1931년 12월 11일 인도의 쿠투와다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그는 반항적이고

독립적이었으며, 남들로부터 주어지는 지식이나 신념에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진리를 체험하고자 했다. 21세에 깨달음을 얻은 오소는 인간 의식의 발전 단계를 규명하고, 현대인의 영혼에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파했다.

오소는 1990년 자신의 몸을 떠났다. 푸나에 있는 그의 대규모 공동체는 영적 성장을 위한 메카가 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명상, 치료, 창조적 프로그램 등에 참가하기 위해 전세계로부터 해마다 수천 명이 방문하고 있다.

역자 | **손민규** | 명상가이며 번역가. 오소의 제자로 입문하여 스와미 프렘 요잔(Swami Pream Yojan)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법구경』 『금강경』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마음을 버려라』 『禪, 빈 거울에 담긴 노래』 등 다수의 번역서가 있다.

추천도서 마음에 밝은 책 Good Book

## 비움(요가 수트라 1)

오소 저 | 손민규 역 | 태일출판사 | 15,000원



육체와 영혼을 한데 어우르며, 진정한 나와 의 만남으로 안내하는 요가 해설서. 영혼의 중심까지 파고들어, 지고의 행복에 도달하게 하는 효과적인 요가의 방법들을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먼 미래에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오늘의 즐거움을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한다. 또한 단식과 자연스런 식사, 깊고 리드미컬한 호흡, 요가 수련, 자연스럽게 유연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몸이 스스로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몸에 자유를 부여하는 일이야말로 참다운 '요가'와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